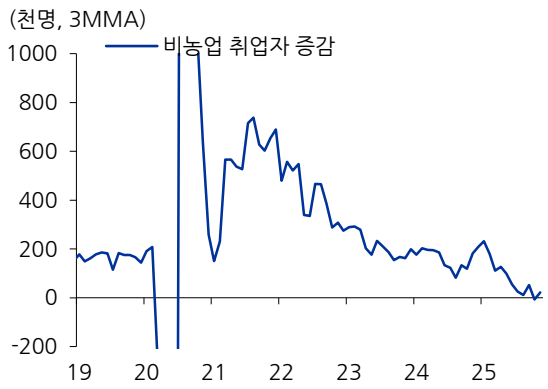
Global Economy

미국 고용 - 더 나빠진 것은 없다

Economist 이정훈, CFA _ 02)368-6138_ jhoonlee@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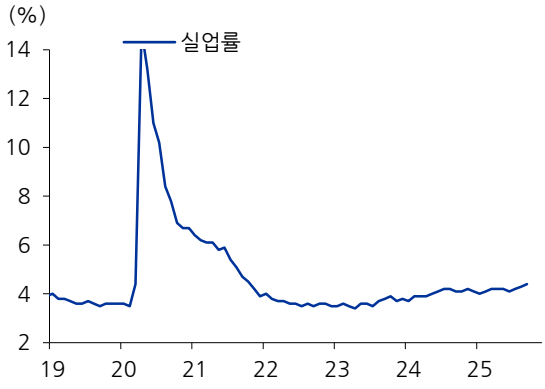
- 11월 비농업 취업자 +6.4만 명 증가, 실업률은 4.6%로 2021년 10월 이후 최고치로 상승. 10월 비농업 취업자는 연방공무원 해고 여파에 -10.5만 명 감소
- 헬스케어의 의존도가 높다는 점과 셧다운 여파로 데이터 수집이 원할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감안해야 하지만, 민간 일자리 추세만 본다면 지난 몇 달간 고용 하방 압력이 더 커졌다고 주장하기에는 어려움
- 연준이 고용 시장을 계속 주시할 만한 상황이나 그렇다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이유도 아직은 없음
- 지난 FOMC에서 파월은 고용의 '체계적' 과대 계상 가능성을 다시 꺼냄. 내년 2월 벤치마크 수정에서 하향 조정이 반복된다면 임기 내 추가 인하도 가능할 수 있음

미국 3 개월 평균 취업자 +2.2 만 명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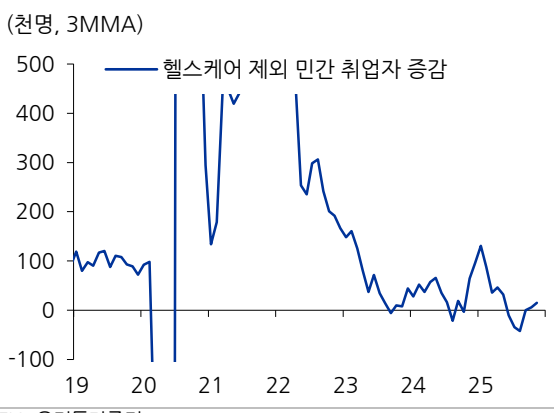
자료: CEIC, 유진투자증권

실업률은 4.6%로 2021 년 10 월 이후 최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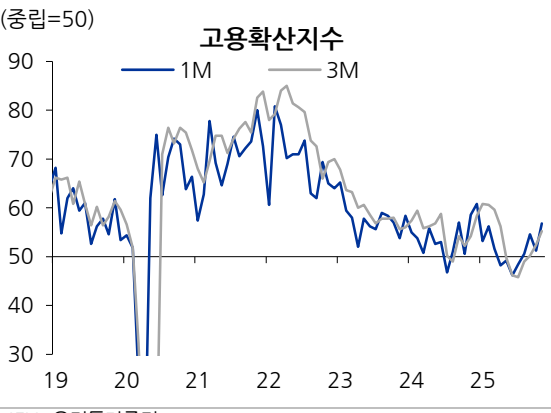
자료: CEIC, 유진투자증권

아직은 헬스케어 빼면 위축된 고용



자료: CEIC, 유진투자증권

반면 고용 확산지수는 올들어 최고치



자료: CEIC, 유진투자증권

더 나빠진 것은 없다

미국 11 월 비농업 취업자는 +6.4 만 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를 약간 웃돌았다. 셧다운에 발표되지 못했던 10 월 고용은 전월비 -10.5 만 명 감소했다. 11 월 실업률은 4.6%로 상승해 2021 년 10 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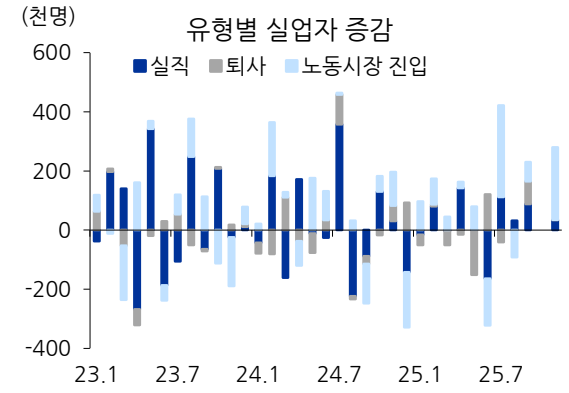
10월 고용이 큰 폭으로 감소했던 것은 기존에 예상되었던 연방정부 공무원 해고 영향이 컸다(정부서비스 -15.7 만 명). 민간의 흐름만 본다면 지난 3 개월 동안은 여름 보다 약간 개선되었다. 실업수당 데이터에서도 해고의 조짐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실업률 상승도 경제활동인구 유입의 영향이 대부분이다.**

최근 취업자 증가가 대부분 헬스케어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고용 시장의 지속성에 의구심을 가질만한 요인이다. 당장 11 월만 보면 전체 일자리 증가와 헬스케어 일자리 증가가 같았다.

하지만 민간의 고용확산지수는 올해 들어 최고치로 상승했고, 지난 몇 달간 개선 중이다. 여러 **데이터들의 방향성이 혼재되어 있으나 적어도 지난 몇 달간 고용 시장의 하방 압력이 더 커졌다고 주장하기에는 어렵다. 셧다운 여파로 데이터 수집이 원할하지 못했던 점도 고려해야 한다.** 지금은 연준이 고용을 계속 주시해야 하지만,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이유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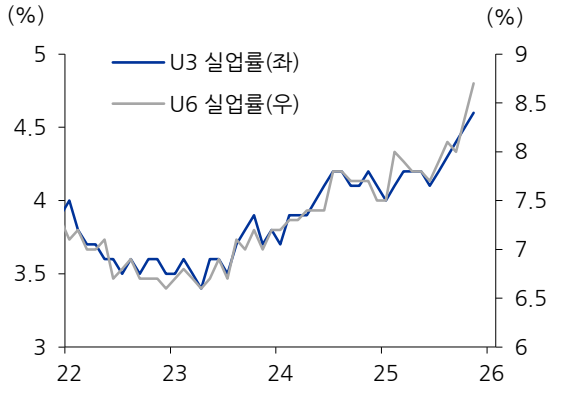
지난주 FOMC 에서 파월 의장은 고용 데이터가 여전히 '체계적으로' 과대계상되고 있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는 통계적 가정이 가지는 한계 탓에 지난 몇 년간 이미 데이터로 확인된 부분이다. 이를 재확인하려면 내년 2 월 벤치마크 수정까지 기다려야 한다. **1 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2 월에 고용 데이터 하향조정이 반복된다면 파월 임기 내 추가 인하가 나올 수 있다.**

도표 1. **11 월 노동시장 진입이 실업의 대부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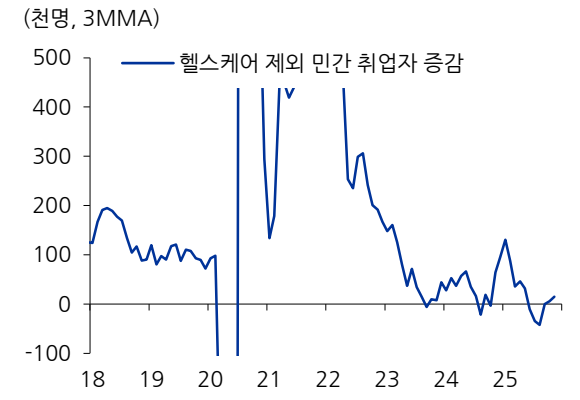
자료: CEIC, 유진투자증권

도표 2. **U-6 실업률이 큰 폭으로 높아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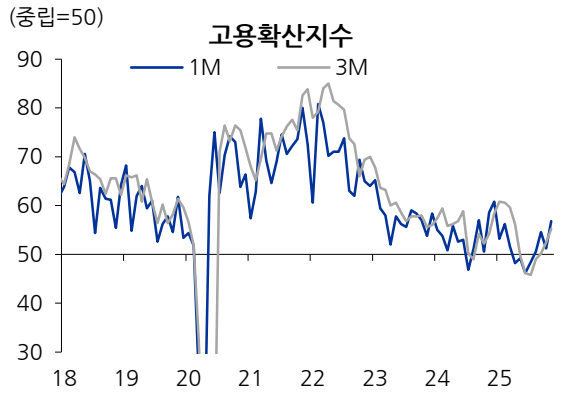
자료: CEIC, 유진투자증권

도표 3. **아직은 헬스케어 빼면 위축된 고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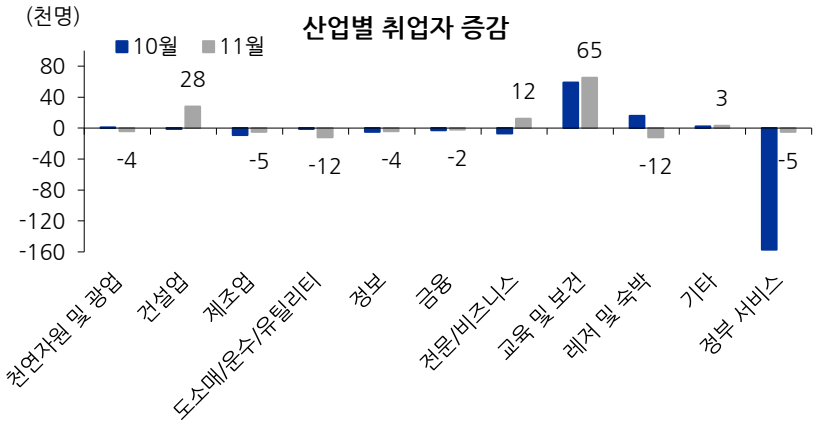
자료: CEIC, 유진투자증권

도표 4. **반면 고용 확산지수는 올들어 최고치**



자료: CEIC, 유진투자증권

도표 5. **11 월 고용은 건설업과 헬스케어 중심 반등**



자료: CEIC, 유진투자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 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